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275

JCCT 2019-2-33

촬영감독 로저디킨스의 촬영스타일 연구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비겁한 로버트포드의  
제시제임스 암살>, <블레이드러너 2049>를 중심으로

**A study on Director of Photography Roger Deakins  
- Focusing on <No Country for Old Men>, <The Assassination of Jesse James  
by the Coward Robert Ford >, <Blade Runner 2049 >**

유재응\*

**Jae-Eung, Yoo\***

**요약** 로저 디킨스는 최고의 촬영감독으로 인정받고 있다. <바톤 핑크> 이후 코언 감독과 다수의 작품을 함께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드니 빌뇌브 감독과 세 작품을 연달아 작업하였다. 아카데미 촬영상에 13번 노미네이트되다가 2018년 <블레이드러너 2049>로 촬영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와이드 앵글과 프랙티컬 라이트를 사용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렌즈와 조명기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그의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난 영화로 평가받는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앤드류 도미닉, 2007)과 코언 감독과 작업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7), 드니 빌뇌브 감독과 작업한 <블레이드러너 2049>을 중심으로 그의 촬영스타일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촬영감독, 로저 디킨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비겁한 로버트포드의 제시제임스 암살>, <블레이드 러너 2049>

**Abstract** Roger Deakins is one of the best director of photography in the world. He has been worked with Joel Coen & Ethan Coen since <Barton Fink>(1991). He was nominated for Academy award 13 times. At last, he won the 2018 Academy Award for Best Pictures of the Year. This article aim to look at his style of photography, which he has consistently pursued, and how he controls and implements light. Focusing on The Assassination of Jess James by the coward Robert Ford>,<No Country for Old Men>, <Blade Runner 2049>

**Key words** : Director of Photography, Roger dealins, <No Country for Old Men>, <The Assassination of Jesse James by the Coward Robert Ford >, <Blade Runner 2049 >

I. 서론

촬영은 화면의 분위기와 감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촬영감독은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

일을 구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렌즈를 선택하고 카메라와 인물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화면의 톤을 선택한다. 무엇보다 조명을 콘트롤하고 렌즈의 심도를 이용해 화면의 깊이감을 조절하여 관객에게 이야기를 시각적 인

\*정회원,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제1저자)  
접수일: 2018년 12월 2일, 수정완료일: 2018년 12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02, 2018 / Revised: December 28, 2018  
Accepted: January 08, 2019

\*Corresponding Author:yooje@chungwoon.ac.kr  
Dept. of Broadcaoting&Film, Chungwoon University, Korea

어로 전달한다. 가끔은 영화의 다른 요소들을 제외하고 촬영감독이 만들어낸 이미지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순간들도 있다. 감독이 영화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하지만 스크린에 비치는 화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촬영감독에게 있다. 촬영감독은 보통 감독에게 자신을 맞추어지만 일부 촬영감독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독특한 독창성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영화사 초창기에는 촬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카메라맨이라고 통칭했는데 이는 그 역할이 단순히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것에 국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 조명이 발달하고 관련 기술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라이팅 카메라맨(lighting cameraman)으로, 촬영의 예술적 표현이 강조되면서 시네마토그래퍼(cinematographer)라 부르기도 하며 오늘날에는 현장에서 카메라를 직접 조작하기보다는 촬영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화면의 완성도를 책임지면서 촬영감독(Director of Photography, DOP)이란 호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1]

로저디킨스는 전 세계의 최고의 촬영감독들 중 한명이다. <블레이드 러너 2049 Blade Runner 2049> (드니 빌뇌브 Denis Villeneuve, 2017)로 2018년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한 그는 이미 <쇼생크탈출 The Shawshank Redemption>(프랭크 다라본트 Frank Darabont, 1994), <파고 Fargo>(에단코엔, 조엘코엔 Ethan & Joel Coen, 1996),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제임스 암살 The Assassination of Jesse James by the Coward Robert Ford>(앤드류 도미니크 Andrew Dominik, 2007), <스카이폴 Skyfall>(샘 멘더스 Sam Mendes, 2012), <프리즌스 Prisoners> (드니 빌뇌브 Denis Villeneuve, 2013), 등 많은 영화들을 통해 아카데미 촬영상에 13번 노미네이트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1949년 영국 토르웨이(Torquay)에서 태어난 로저 디킨스는 어린 시절 예술학교(Bath School of Art and Design)에 진학하여 그림을 배웠고, 대학에서는 사진을 전공하였다. 런던의 국립 영화학교(National Film & Television School)에 진학한 이후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7년간 지속된 다큐멘터리 작업은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된 극영화 촬영 방식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계기가 된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 Another Time, Another Place>(마이클 레드포드, 1983)로 극영화 데뷔한 로저 디킨스는 <시드와 낸시 Sid And Nancy>(알렉스 콕스, 1986)로 미국에서 첫 작업을 하게 된다. <시드와 낸시>는 로저 디킨

스라는 새로운 촬영감독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다. 핑크 스타일의 이 영화는 거칠고 불안정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놓치지 않는 새로운 카메라맨의 등장을 알린 작품이 됐다.[2] 이후 <패션 피쉬>, <데드맨 워킹> 같은 인디영화 작업을 거쳐 코언 형제와 만나 <바튼 핑크>(Barton Fink, 1991)를 작업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저 디킨스의 최고 작품으로 평가되는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 The Assassination of Jesse James by the Coward Robert Ford> (앤드류 도미니크, 2007)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No Country for Old Men> (에단코엔, 조엘코엔, 2007), <블레이드러너 2049 Blade Runner 2049> (드니 빌뇌브, 2017)를 중심으로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그의 촬영 스타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작품은 로저 디킨스의 작품 세계를 잘 드러내는 대표작으로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은 자타 공인 그의 최고작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를 없다>와 <블레이드 러너 2049>는 그가 가장 오래 동안 여러 작품을 함께 작업한 코언 형제와 최근 연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 드니 빌뇌브 감독과 작업한 작품들이다. 이 세 작품은 공간과 인물을 화면에 담아내는 앵글, 조명, 컬러 등에서 촬영감독으로서 로저 디킨스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이다. 다소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스토리텔링, 대사보다는 이미지로 담아내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의식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 II. 본 론

### 1. 와이드 앵글, 풍경과 공간의 캐릭터화

로저 디킨스의 촬영방식은 다큐멘터리 촬영 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공간을 담아내는 와이드 앵글의 사용에 능숙하고 효율적인 조명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사용하는 실험정신을 갖고 있다. 한국의 촬영감독 김우형은 로저 디킨스에 대해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스토리를 진전시키는 흔치않은 감독들 중 하나다. 또한 과장된 수식을 배제하고, 조명의 사용에 인색하며, 절제된 색감과 단순한 실루엣으로 영화의 핵심을 파고드는 촬영감독이라고 평한다.[3] 로저디킨

스는 나는 항상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나는 공간에서 누군가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는 얇은 피사계심도나 아웃포커싱된 이미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배경이 되는 영화의 공간은 인물만큼이나 관객에게 말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4] 코빈 매카시의 동명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2백만 달러가 든 돈가방을 들고 도주하는 남자와 이를 추적하는 남자의 관계를 구심점에 두고 이 둘을 추적하는 보안관의 시선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작품이다. 황량한 미국의 서부가 배경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풍경은 단지 배경화면 그 이상이다. 조엘과 에단은 원하는 환경에 대해 매우 분명한 아이디어를 갖고 텍사스 일부와 주로 뉴멕시코를 로케이션 장소로 물색한 다음 산타페에서 촬영을 했지만 영화에 와이드 앵글로 잡힌 멀리 보이는 사막의 지평선은 텍사스의 마르파에서 촬영되었다.[5]



그림 1.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풍경과 주인공 모습  
Figure 1. The landscape and the main character <No Country for Old Men>

그림 1.에 보이는 황량한 사막은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다. 와이드 앵글로 멀리 지평선이 보이는 풍경과 사막 한가운데서 주위를 살피는 주인공 르웰린(조슈 브롤린)을 가운데 배치한 로저 디킨스의 프레임은 프레임 안에서 배우가 공간과 관계를 갖는 방식과 관객들이 캐릭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4] 주인공과 주인공만큼의 비중이 있는 공간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인 것이다. 르웰린은 사냥를 하다 우연히 돈가방을 발견한다. 가담자는 모조리 몰살된 거래가 틀어지진 마약 거래 현장이었다. 이 영화의 특징은 돈가방을 놓고 도주와 추격을 벌이는 두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인 르웰린은 용접공으로 사막에 있는 트레일러에서 아내와 살고 있고, 그를 추적하는 안톤 쉬거(하비에르 바르뎀)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원칙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 연쇄살인마이다. 안톤 쉬거가 왜

연쇄살인마가 되었는지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과거나 자세한 인과관계를 생략한 추격전은 돈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미국 사회의 본질을 보여준다. 르웰린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지 못 한 채 은퇴를 한 보안관 벨(토미 리 존스)이 느끼는 허망함과 씁쓸함만이 영화가 전달하는 유일한 감정이다.

## 2. 심플한 조명과 실루엣.

어린시절 사진을 한 경험과 다큐멘터리 작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킨스는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끊임없이 집착한다. 그는 화면을 사람들이 아주 진솔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6] 디킨스가 그의 영화에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몇 가지 기술이 있는데 우선 인위적인 조명의 사용을 최대한 배제한 사실주의에 기초한 심플한 조명을 사용하는 것과 극단적 명암대비를 이용한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1) 프랙티컬 라이트

프랙티컬 라이트는 화면에 보이는 조명을 말한다. 프랙티컬 라이트는 조명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관객이 장면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미술적인 요소로도 사용되어 프로덕션 디자이너와 의논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은 1881년 유명한 열차강도 갱단의 두목 제시 제임스와 그를 추종하는 로버트 포드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배신을 다루고 있다. 웨스턴이긴 하나 액션물이라기보다는 늘 불안에 시달리는 갱스터의 고독과 그를 흠모하는 소년이 겪는 심리적인 갈등과 배신을 그린 영화다.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섬세한 심리와 존재론적인 주제 의식은 특히 조명에 의해 잘 부각된다. 영화의 열차 강도 시퀀스 중 제시제임스 일당이 열차를 세우는 장면은 프랙티컬 라이트가 잘 사용된 예다. 강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석유등은 실제로는 300W 전구를 사용해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영화에 나오는 프랙티컬 라이트는 소품의 역할에 그치지 실제로 조명광원으로서 의미가 없다. 관객은 그저 등불로 본다고 믿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로저 디킨스에게 중요한 것은 빛이 그 등불에서 나와야 한

다는 것이다. 그는 흔히 사용하는 삼각조명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재현하는 방식에는 관심이 없기에 화면은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인물들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다. 열차가 멀리서 다가오면서 전조등이 숲을 비추는 장면에서 기차에 설치한 5K텡스텐 조명이 움직이며 그에 따라 숲 사이에 숨어있는 강도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레일과 바퀴가 부딪치며 생기는 스파크와 그 너머의 강도들의 모습과 열차가 장애물에 부딪치며 카메라가 밀리는 느낌, 관객을 향해 돌진하는 열차 이 장면은 증기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화이트아웃으로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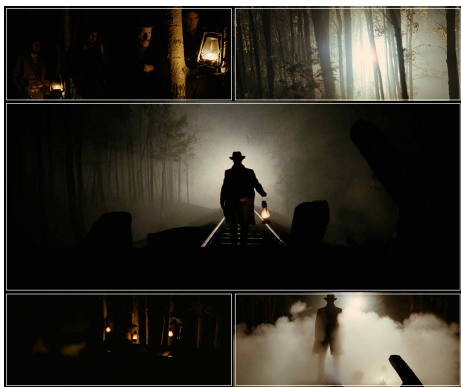


그림 2.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 열차 강도 장면  
Figure 2. Train Strength scene of <The Assassination of Jesse James by the Coward Robert Ford>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보안관 벨과 안톤 쉬거가 모텔에서 대치하는 장면 또한 프랙티컬 라이트가 효과적으로 쓰인 예이다. 보안관 벨은 사건 현장인 모텔을 다시 찾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모티브로 하여 구멍 뚫린 현관문 손잡이를 보고 안에 숨어있던 안톤 쉬거와 숨막히는 긴장을 이끌어내고 있다.[7]



그림 3.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모텔장면  
Figure 3. The motel scene of <No Country for Old Men>

보안관 벨이 사건현장에 도착해 모텔 문의 뚫린 열쇠구멍을 바라본다. 문 안쪽에는 어둠 속에서 안톤 쉬거가 숨죽이고 누워있다. 한참 숨을 고른 벨은 드디어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고 벨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보이고 이어지는 리버스 샷은 반대편 벽면에 비친 벨의 거대한 그림자이다. 문 입구 카펫에 남아 있는 핏자국으로 쉬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방안 어디에도 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허탈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은 벨은 무심히 고개를 돌리다 뜯겨진 통풍구 창틀을 보게 된다. 창틀 나사 옆에서 동전이 하나 놓여 있다. 이 동전으로 그가 사람을 죽일 때 게임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다. 앞면과 뒷면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만 실은 결과와 살인은 무관했다. 뜯긴 창틀과 나사, 동전은 더 이상 손 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느낌을 받는 벨의 심정이 담긴 화면을 구성한다.

## 2) 매직아워

매직아워는 일출전, 일몰후 약 30분가량의 시간대를 지칭한다. 이 시간대는 마법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해서 ‘매직아워’라고 한다. 많은 촬영감독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이긴 하나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신의 콘티뉴리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영화에서는 한정적으로 사용 된다. 또한 대부분은 일출이나 일몰을 배경으로 찍기 때문에 붉은 이미지가 주를 이루지만 일출 또는 일몰의 반대쪽은 하늘의 푸른 기운이 차갑고 서늘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로저 디킨스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매직아워 시간대를 이용한 실루엣 이미지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림 4.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사막추격 장면  
 Figure 4. Desert chase scene of <No Country for Old Men>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르웰린은 이른 새벽 물통을 들고 사막의 마약거래 현장으로 돌아간다. 낮에 물을 찾던 유일한 생존자를 위해 그곳에 갔던 그는 돈가방을 회수하러 온 범죄조직원들과 마주치고 구사일생도 망친다. 동트기 전 푸르스름한 하늘을 배경으로 범죄조직이 몰고온 트럭 헤드라이트에서 비취진 노란색 불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섬뜩한 공포를 느끼게 한다. 푸른색과 노란색의 조화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사막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범죄조직원들에 발견되고 총격전 끝에 부상을 입으로 겨우 도망치는 르웰린과의 추격적은 해가 뜨는 시간까지 이루어진다. 로저 디킨스는 이 매직 아워 장면 촬영을 위해 트럭을 언덕에 주차시켰다. 트럭 뒤에 있는 조명으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연출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이 장면은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8개의 18K HMI조명을 하늘방향으로 지향하여 공기중의 먼지를 비추었고 이로 인해 트럭 뒤에 매우 희미한 푸른빛이 형성되게 하였다.[8]

### 3. 새로운 기술의 실험

로저 디킨스는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촬영감독이다. 그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할 뿐이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집착은 없다고 말한다.[4]. 영화에 관한한 그는 고전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펜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사진작가가 되고 위대한 소설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촬영감독으로서의 그의 역할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영화라는 것이 본래 여러 사람이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거기서 특별함을 찾을 수 있다. 컴퓨터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영화적 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는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을 촬영하기 위해 새로운 렌즈를 만들었다. 영화에서 이 렌즈는 주로 나레이션으로 제시제임스의 과거를 보여줄 때 사용되었다. 그는 앤드류 도미니 감독이 레퍼런스로 보여준 구시대의 사진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렌즈를 변형시켜 화면 주위에 비네팅 현상과 색상 회절이 나타나게 하였다.[4] 이 렌즈로 촬영된 장면들은 몽환적이며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창출한다. 현실에서는 악명높은 갱이지만 실제로는 가정적이며 또한 늘 불안에 시달리는 고독한 남자 제시 제임스의 내면을 포착해 내는 장면들이다.



그림 5.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에서 디킨 나이즈 렌즈로 촬영된 장면  
 Figure 5. Deakinizers Lens Shot <The Assassination of Jesse James by the Coward Robert Ford>

로저 디킨스는 자신이 직접 조명을 만들어 사용하는 데 텅스텐 또는 할로겐램프로 만든 DIY Ring Light system이 그런 예이다. 샘멘더스 감독과 작업한 <자헤드 Jarhead>(2005)의 사막에서 불타는 유전 장면과 <스카이폴>의 불타는 집을 탈출 장면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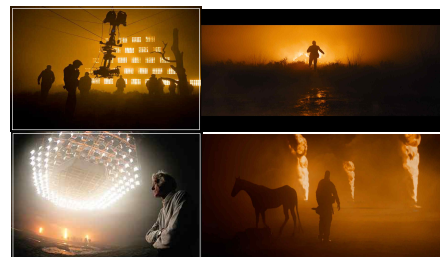


그림 6. 로저디킨스가 직접 만든 조명과 영상  
 Figure 6. Roger Dickens' DIY Ring light system

드니 빌뇌브 감독과 작업한 <블레이드 러너 2049>은 디킨스가 촬영감독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역량을 발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블레이드 러너>(리들리 스콧, 1982)의 속편에 해당하는 이 작품은 여러 가지로



원작 이상의 완성도를 갖고 있다. 디킨스는 베이징 도시의 야경과 스모그 도시의 모습등에서 <블레이드 러너 2049>의 환경이 기후 변화에 의해 파괴되어 다양한 요소를 둘러싼 근사한 경관을 만들어 낸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해 디스토피아적 미래 도시의 비주얼을 만들어 내는데 거대하고 획일화된 월레스 본사의 내부를 움직이는 태양 광원 만들기 위해 두개의 링에 285개의 텅스텐램프를 단조명을 직접 제작 사용하였으며 단조로운 배경에 물반사를 이용한 빛이 일렁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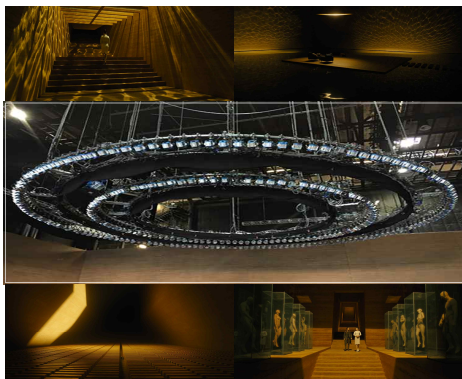


그림 7.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월레스 본사  
Figure 7. Two scenes in Wallace's office <Blade runner 2049>

### III. 결 론

로저 디킨스는 놀라운 이미지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촬영감독이 아니다. 그는 내러티브를 흡수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있다. “나는 내가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장면에서 사용된 조명을 보면 정말 멋지다는 걸 알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건 정말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나는 배우고 있어서 내가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4] 이런 발언들은 그가 4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촬영감독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준다. 작품에 적합한 스타일이 진정한 스타일이라고 믿기에 그는 항상 시나리오 안에서 답을 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9]. 이 논문에서 살펴본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블레이드 러너 2049>는 모두 화면으로 구현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영화다. 복잡하고 섬세한 인물들의 심리와 이들 간의 긴장을 그려야 하는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

살>은 일반적인 웨스턴과는 거리가 멀다.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지 않고 비정한 분위기로 시종일관 치닫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공간과 인물의 배치만으로 효과를 전달해야 하는 장면이 많다. <블레이드 러너 2049>는 하드보일드 탐정영화 스타일의 SF였던 원작과 달리 느린 호흡으로 전개되는 사색적인 SF로, 프로덕션 디자인과 촬영으로 완성된 비주얼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들 세 작품에서 로저 디킨스는 평소 자신의 철학대로 시나리오에서 답을 구해 화면으로 옮겨놓았다.

### References

- [1] Film dictionary, Kim GwangCheol, Jang ByongWon, media 2.0, 200.
- [2]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5967](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5967)
- [3] The Story of Eight Korean Film Masters,,Jusung cheol, Youlhwadang, 2013. p228.
- [4] <https://www.theparisreview.org/blog/2017/05/09/master-light>
- [5] <https://cinephiliabeyond.org/no-country-for-old-men>
- [6] <https://www.youtube.com/watch?v=ZUg1j3NT3i4>
- [7] <https://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114249616>
- [8] [https://theasc.com/ac\\_magazine/October2007/QAWithDeakins/](https://theasc.com/ac_magazine/October2007/QAWithDeakins/)
- [9] <https://www.rogerdeakins.com/>

※ 본 연구는 2015년도 청운대학교 대학발전학술연구구성비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